

## 한국의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수용 양상과 민족적 에토스의 편린들

조 수 아\*

### 요약

이 글은 일본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1925~1970)의 수용 양상이 문제적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그의 수용사에 한국의 '비틀린' 내셔널리즘이 새겨져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1960년대 '일본 붐' 현상에서부터 2015년 '신경숙 표절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미시마 유키오는 작품보다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더 주목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시마는 일본 문학 번역이 급증한 1960년대에 처음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때 번역되었던 작품은 『가면의 고백』(1949)과 『금각사』(1957)와 같은 대표작이 아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단편이었다. 당시 대거 출간되었던 전집에서 미시마의 작품만이 동시대성이 단절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국(憂國)』(1961)이 한참동안 번역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그 문제성을 방증해주었다. 1960년대 한국에서 미시마는 '극우 민족주의자'가 아닌 노벨문학상 후보작가, 일본적 미를 구현한 작가로만 거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 미시마가 할복자살을 하자 탈각되었던 미시마의 정치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미시마의 죽음을 곧바로 '민족'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내셔널리즘적 움직임이 이루어졌으며, 그 움직임은 박정희 정권의 민족중흥 담론과 결탁하여 '일본인'을 잘 알아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자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미시마의 죽음을 다루는 지식인들의 태도에서 그러한 '비틀린' 상상을 읽어낼 수 있으며, 민족주의가 그들의 일상에서 내면화되고 사유와 행위를 지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틀린' 내셔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미시마 유키오, 번역, 수용, 문학장(場), 우국, 1960년대, 1970년대, 전후, 일본, 민족, 내셔널리즘

목차

1. 한반도에 몰아치는 일본풍, 퇴락의 징조? - 1960년대의 '일본 봄' 현상과 2015년의 '신경숙 표절 사건'의 교차점
2. 번역되는 전후, 상상되는 미시마 유키오
3. 미시마의 사상적 전환과 「우국(憂國)」의 번역불가능성
4. 다시 도래하는 미시마와 미시마적 일본(인)
5. 결론 - '비틀린' 내셔널리즘의 흔적을 찾아서

## 1. 한반도에 몰아치는 일본풍, 퇴락의 징조?

### - 1960년대의 '일본 봄' 현상과 2015년의 '신경숙 표절 사건'의 교차점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는 『가면의 고백』과 『금각사』를 통해 어린 나이에 일본 전후 문단을 대표하는 총아의 반열에 섰으며,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세 차례나 오르는 등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작가이다. 미시마는 일본의 '미(美)'를 구현한 작가로 평가되어 '쇼와의 귀재'라는 호칭도 얻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친황주의 사상에 경도된 글들을 발표하기 시작하며 '우익' 보수파 작가로 인식되었다. 그의 할복자살은 이러한 인식에 더욱 불을 붙였고, 이제는 정치적 성향을 빼놓고는 그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미시마는 '극우'를 대표하는 인물로 규정된 듯하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입장은 견지되어 미시마는 그의 작품 자체보다 말년의 행보와 죽음, 즉 사상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채 번역되고 수용되었다. 특히 2015년 '신경숙 표절 사건'으로 인해 그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 미시마는 탐미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작가라기보다 강렬한 민족주의자로 알려

지게 되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웅준은 신경숙의 「전설」이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憂國)」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신경숙의 미시마 표절은 번역본의 의식적 표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1)</sup> 논란이 불거지자 창비 측은 표절을 부인하며 “극우 민족주의자”의 작품과 신경숙의 「전설」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내세웠고<sup>2)</sup>, 이에 대해 언론은 작가의 기본적 소명과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신경숙이 표절한 미시마 유키오가 누구인지, 「우국」은 어떤 소설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미시마에 대해 설명하는데 ‘천황만세’ ‘할복자살’ ‘우익 민족주의자’ 등의 표현들이 동원되었고, 대중들은 한국 문단의 대가인 신경숙이 일본의 작가를, 그것도 ‘극우’ 작가를 표절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렇듯 사태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작가가 문학 윤리를 상실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작가가 ‘일본’의 극우 작가를 표절했다는 점이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옷은 순식간에 덧씌워져 논란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 일각에서는 한국 문단의 타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이는 비단 2015년만의 일은 아니다.

미시마 유키오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던 1960년대로 돌아가 보자. 때는 1960년, 4·19가 몰고 온 자유의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은 때였다. 『사상계』의 국내 동향 지면에서는 이 자유와 해방의 영향으로 전국에 ‘왜색(倭色)’이 널리 퍼졌다고 언급했다. 시내의 다방과 바에서는 일제히 일본노래

1) 이웅준,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 : 신경숙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 『허밍턴포스트』, 2015. 6.16.

2) 이웅준의 글을 시작으로 표절 논란이 거세지자, 창비 문학출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작품은 **극우 민족주의자**인 주인공이 천황 직접 통치를 주장하는 쿠데타에 참여하지 못한 후 할복자살하는 작품이며, 신경숙의 「전설」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사랑과 전쟁 중의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룬 작품”이라면서 “유사한 점이라곤 신히부부가 등장한다는 정도”라며 표절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명원, 「신경숙의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 사실, 진실, 맥락의 문제」, 『문화과학』 83, 문화과학사, 2015, 192~194면 참조)

가 흘러나오고, 서점에는 일본 문학 번역물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사람들은 ‘조오리’를 신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대 지식인들은 이러한 폭발적인 ‘일본’ 유입 현상을 문화의 부흥이나 세계와의 만남, 즉 대중이자 4·19를 이끌었던 주체들의 자유주의적 움직임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전국에 만연한 이 “일본풍”은 “친일주의의 부활”과도 같았던 셈이다.<sup>3)</sup> 일본 문학과 문화의 유입은 오히려 강한 내셔널리즘과 식민(지)에 대한 기억을 불러왔다. 짙은 왜색으로 칠해진 거리는 우리 민족의 타락과 퇴폐를 의미하는, 국가적 ‘체면’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다.

『경향신문』의 한 필자는, 확실히 4·19 이전에는 일본의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4·19 이후부터 독서·출판계에 일본 문학 번역 ‘붐’이 일어났다고 썼다.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다는 책이면 하루아침 사이에 출판”되고, 서점에 놓여 있는 일본 문학 번역물만 해도 “근 일백여 종”에 달할 정도로 일본 문학의 인기가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저작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열쇠』, 이시하라 신타로의 『태양의 계절』,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 하라다 야스코의 『만가』 등이었는데, 이러한 작품 모두 실제 전후 일본의 베스트셀러로 불릴 만한 것들이었다. 필자는 일본 문학 붐 현상에 대해 충실히 소개할 뿐 아니라, 끝에서 “요즈음의 왜식 ‘붐’을 볼 때 한민족의 자각심이 모자라지 않은가”하며 자신의 의견까지도 피력한다.<sup>4)</sup> 문화적 현상에 ‘민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다.

여기서 근래의 ‘신경숙 표절 사건’과 60년대의 ‘일본 붐’ 현상이 교차하는 지점이 발생한다. 왜 ‘일본’은 너무나도 쉽게 ‘민족’이라는 담론과 밀착되어 버리는 것일까. 어찌서 우리 ‘민족’은, 일본 문학이나 문화에 “환장”하면서도 끊임없이 “민족적 열등의식과 종족본질론”에 사로잡히는 것일까.<sup>5)</sup> 그것은 60년대 당시 ‘민족적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면서 경제적

3) 「國內의 움직임 - 全國에 몰아치는 日本風」, 『사상계』, 1960.11.

4) 「새 共和國誕生 前과 后 8 - 倭色 붐」, 『경향신문』, 1960.12.28.

로는 일본에 의존했던 박정희의 정치적 행보와 무관하지 않을 테지만,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양가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친일/반일, 식민지성/세계성의 대립적 구도는 65년 한일협정을 기점으로 더욱 극적으로 표출되었으며, 과거 식민지 경험에서부터 축적되어 온 ‘일본’과 그 내면화된 ‘일본’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의 착종을 낳았다. 일본과의 조속한 수교를 추진했지만 문화적 교류를 차단했던 박정희 정권부터가 그러한 분열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분열은 결국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민족의 확립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귀착시켜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해방세대와 4·19세대로 통칭되는 ‘전후세대’는 “‘일본’이, 또 ‘반일’이 토의되는” 이 현장 가운데서 “자아를 재검토”<sup>5)</sup>하고자 한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식민지 경험을 되새겨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분열되고 착종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사유하고자 했다. 일본어가 익숙했기에 일본 문학 번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들 각각의 자아와 존재 증명 방식을 살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1960~70년대의 번역문학장에도 시대의 혼란한 흔적이 나타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강우원용과이종호, 서은주의 연구<sup>6)</sup>는 그러한 시대의 흔적에 주목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이들은 전후 ‘세계문학전집’의 기획과 ‘일본 봄’ 현상을 조망하면서, 그렇게 수용된 일본 문학과 문화가 세대론과 민족주의의 외장을 두르고 있었으며 그 이면에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 즉 일종의 식민성이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5)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상상, 2012, 516-517면.

6) 권보드래, 「내 안의 일본 - 해방세대 작가의 식민지 기억과 ‘친일’ 문제」,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 404면.

7) 강우원용, 「1960년대 일본문학 번역물과 한국 ‘호기심’과 ‘향수’를 둘러싼 독자의 풍속」, 『일본학보』 39, 한국일본학회, 2012; 이종호, 「1960년대 일본번역문학의 수용과 전집의 발간-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1, 대중서사학회, 2015; 서은주, 「1960-70년대 일본문학 수용에 나타난 세대의식과 냉전의 메커니즘」, 『한국학논집』 7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

있다. 이처럼 일본문학의 번역과 수용을 통해 이 시기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읽어낸 연구들은 꽤나 축적되어 있는 한편, 개별 작가들의 구체적인 수용사를 논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sup>8)</sup>

미시마 유키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시마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었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sup>9)</sup> 4·19 이후 급격하게 몰아치던 ‘일본풍’ 속에서, 반공·반일을 기반으로 구축된 ‘전후’ 한국에서, 극우적인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가진 미시마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가장 최근인 ‘신경숙 표절 사건’에서 엿볼 수 있듯 이 시기에도 사건의 당위보다 ‘민족’이라는

8) 전후 일본 작가 개개인이 한국에 수용된 경위를 밝히는 연구는 오에 겐자부로외의 수용사를 다룬 이행선의 연구(「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번역 수용과 전후문학(자)의 월경」, 『현대소설연구』 21,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외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이 당시 추리소설 붐을 일으킨 사회와 추리소설 작가 마쓰모토 세이초의 수용사를 규명한 안혜연의 연구(「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추리소설의 한국 수용·번역과 TV드라마를 중심으로」, 『사이間SAI』 2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9)가 있지만 대중서사 연구라는 점에서 이 글의 맥락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 연구 이외에 개별 작가의 수용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개별 작가라 하더라도 한·일 작가들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등의 비교연구 형식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문화적 횡단을 추적한 『한국과 일본의 문학과 민주주의 : 교통과 횡단』(계명대학교 출판부, 2022)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9) 그동안 미시마에 대한 연구는 작가·작품론의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대개 ‘미의식’에 치중되어 있었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미(美)’는 미시마의 보수주의 혹은 천황주의 사상을 작동시키는 원리로 설명되곤 했다. 김항(「주권의 표상 혹은 공백의 터부 : 미시마 유키오의 텐노와 미」, 『미술사학보』 42, 미술사학연구회, 2014)과 홍윤표(「미시마 유키오 『금각사』에 나타난 미의 원리-문화천황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50,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0)의 연구가 그 일례이다. 이렇듯 미시마가 구현한 ‘미(美)’에 천황에 대한 대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론인 듯하다. 남상욱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미의식이 전후 일본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며 그 정치적·문화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다. 미시마와 그의 작품을 시대와 나란히 고찰한다는 점에서 남상욱의 연구(남상욱, 「아베 신조 『아름다운 나라』 속의 ‘미’와 ‘국가’ : 미시마 유키오의 렌즈를 통해 본 전후 보수주의 미학」, 『일본비평』 6, 일본연구소, 2014)는 매우 의의가 있으며, 이 글의 논지를 구성하는 데에도 큰 참조가 되었다.

정체성이 더 앞서 작용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리기 위해 이 글에서는 아직 미처 확인되지 않은 미시마 유키오의 수용 양상을 살피고, 그 수용사에 한국의 ‘비틀린’ 내셔널리즘이 새겨져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 굴절과 변곡을 탐색하는 것은 곧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에 대한 고찰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 2. 번역되는 전후, 상상되는 미시마 유키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는 일본 문학 번역물이 급증한 시기이다. 1950년대에 일본 문학은 몇 작품 손에 꼽을 정도로 번역되는 수가 적었는데, 1960년이 되자마자 다수의 선집·전집이 간행되는 등 매우 활발히 번역되었다. 그 계기로 인해 당시 한국 문단에서는 1955~60년 사이에 일본에서 발표된 화제작, 수상작, 베스트셀러 작품까지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4·19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김승옥이 이 시기에 번역되기 시작한 일본 소설을 읽고 충격과 자극을 받았다고 회고한 만큼, 뜨겁게 불던 일본 문학의 바람은 이 세대의 작가들에게 새로운 감각을 선사했다. 김승옥의 경우만 봐도, 전후에 등장한 신인인 다자이 오사무, 엔도 슈사쿠, 오에 겐자부로 등의 작품을 읽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아프고 절실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었던지 감탄하며 “소설이란 것이 이런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번역’된 작품을 통해 ‘일본’과 ‘전후’라는 시대를 만났던 것은 작가들뿐만이 아니었다. 대중들 또한 번역된 일본 문학을 탐독하여 60년대 초반에는 일본 번역물 대다수가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현상도 발생했다.<sup>11)</sup> 문단에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10) 「좌담 :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최원식·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30~31면 참조.

11) 1960년대 베스트셀러 시장을 살펴보면, 한국 서적 다음으로 일본 서적의 베스트셀러 비율이

60년대의 개막과 함께 들어온 일본 전후 문학 중에서,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은 늘 빠지지 않았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미시마의 작품은 『비틀거리는 미덕(美德のよろめき)』으로, 『일본문학선집』(청운사, 1960)에 수록되었다.<sup>12)</sup> 도덕/비도덕적 연애에 대한 고찰을 보여준 이 소설은 1957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는데<sup>13)</sup>, 그로부터 3년 뒤인 1960년에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국내에 들어오는 시기부터 최종 간행되는 시기까지 고려하면 『비틀거리는 미덕』은 거의 일본과 동시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출판사마다 아쿠타가와상 등의 수상작가 또는 전후작가 작품을 모아 선집·전집을 발간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어 문단에는 상당한 양의 번역물이 쏟아졌다. 미시마의 작품은 수상작가의 선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전후문학 선집, 세계문학 전집 등에 포함되었다. 그의 소설이 아닌 산문도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는데, 그 중 『부도덕교육강좌(不道德教育講座)』는 1963년 한국의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sup>14)</sup>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의 작품은 꾸준히 번역되어 한국 문학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1960년대에 출판된 미시마의 작품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sup>15)</sup>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62년의 경우, 몇몇 일본 작가들의 책이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1위 점유 빈도를 나타냈다. 『가정교사』를 비롯한 이시자카 요지로의 소설은 1962-63년 사이 19회나 1위를 차지했고, 오다 마코토 등 여타 작가의 에세이, 논픽션 등도 높은 판매율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당시 베스트셀러 시장은 일본 소설의 압도적인 우세와 일본 에세이 수용의 발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즈음해 일본 서적에 대한 비판 담론이 강하게 대두되며 베스트셀러 시장에서도 일본 서적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용희, 「1950-60년대 외국 서적의 수용과 ‘베스트셀러’라는 장치」,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8, 207-209면 참조)

12) 윤상인 외,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 1945-2005』, 소명출판, 2008, 238면 참조.

13) 「ベストセラー本」 <https://nendai-ryuukou.com/book.html> 참조.

14) 미시마 유키오의 『부도덕교육강좌(不道德教育講座)』를 광고하는 칸에 “출간 1주일 만에 재판! 당당 베스트셀러 제 1위!” 라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시마 유키오 저 이시칠 역 부도덕교육강좌」, 『동아일보』, 1963.1.3. 참조)



작품명	출판사	출판 년도	비고
『비틀거리는 미덕(美德のよろめき)』	청운사	1960	『일본문학선집 1』에 수록
『신문지(新聞紙)』	신구문화사	1960	『일본전후문제작품집』에 수록
『부도덕교육강좌(不道德教育講座)』	세기출판사	1962	이후 『구명뚝린 인간진리』(1962), 『거꾸로 본 인생』(1962)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1962) 등 작품명이 변경되어 꾸준히 발표되었다.
『파도소리(潮騒)』	신태양사	1962	『파도소리(潮騒)』는 1954년 6월 제 1회 신조사문학상수상작이다.
『답교(踏橋)』	희망출판사	1966	『일본대표작가백인집 5』에 수록. 원문은 1956년 12월 《문예춘추(文藝春秋)》에 발표된 「橋づくし」.
『조춘(早春)』	한국문화출판사	1967	1962년 출간된 『파도소리(潮騒)』가 작품명이 변경되어 재번역되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문음사	1967	1962년 출간된 『파도소리(潮騒)』가 작품명이 변경되어 재번역되었다.
『금각사(金閣寺)』	신구문화사	1968	『현대세계문학선집 12』에 수록
『금각사(金閣寺)』	민중서관	1969	『오늘의 세계문학 10』에 수록

15) 윤상인 외, 앞의 책, 238-239면과 이한정, 『일본문학의 수용과 번역』, 소명출판, 2016, 14-22면을 참조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윤상인은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과 『조춘(早春)』,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세 작품 모두 각각 다른 작품이 번역된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 번역본을 확인해 본 결과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는 1958년 《주간명성(週刊明星)》에 연재되어 이듬해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부도덕교육강좌(不道德教育講座)』를 번역한 것이고, 『조춘(早春)』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는 모두 1954년 제1회 신조사문학상을 수상한 『파도소리(潮騒)』가 제목이 변경되어 재번역·재출간된 것이었다. 이러한 오류는 다음 표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62년도에 처음 번역되었던 『파도소리(潮騒)』가 67년도에 다시 다른 제목으로 번역·출간된 점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이 시기에 출판된 전집·선집 중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일 것이다. 이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은 엄밀하게 말하면 『세계문학전집』의 ‘일본편’인데, 이 ‘일본편’을 “넣느냐 빼느냐”에 편집위원들은 오래도록 고민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민족적 원한으로 인해 적대시되고 있는 일본이지만, “그네들이나 우리는 다같이 아세아적 후진성에서 번민하고 있는 황색피부의 인종들”이자 “서구문명의 바람 앞에서 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러한 자들의 문학이 꼭 소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편집위원들은 “전후에 가장 문제되었던 일본소설을 엄격히 추린 것은 물론, 문화국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일일이 여기 수록된 일인(日人)작가의 양해를 구하고 판권을 얻은 끝에 일을 착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작가들은 편집위원들의 노력과 작품집의 취지에 깊게 공감하고 “격려까지 표명”<sup>16)</sup>하며 편지도 보냈다고 한다.

목차 분류도 매우 세밀했다.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은 ①아쿠타가와수상작 ②중앙공론·요코미쓰수상작 ③문제작가편 ④문제작의 주변(편집위원의 평) ⑤작가는 말한다와 같이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파트에서 일본 문단의 현장을 조명하고, 그 현장과 동시대적으로 호흡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미시마의 작품은 「신문지(新聞紙)」라는 작품이 번역되었고 ③문제작가편에 수록되어 있었다. 번역은 최정희가 맡았는데, 그는 직접 미시마의 작품이 무엇보다 “짧았”기 때문에 번역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밝혔으며, 처음에는 자신이 “할 일이 못되는 것” 같아 번역을 주저했지만 막상 번역을 하고 나니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여주인공 도시코의 생각을 섬세하게 표현한 미시마의 소설에 대해서는 “남자가 쓴 소설 같지 않다”<sup>17)</sup>고도 말하기도 했다. 최정희가 극찬한 「신문지」는 1955년 3월 『문예(文藝)』에 발표되었으며, 여주인공

16) 백철, 안수길, 최정희 편, 『일본전후문제작품집』, 1960, 신구출판사, 3면.

17) 위의 책, 411면.

도시꼬의 집에 새로 온 간호원이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소설이다. 원치 않는 출산 끝에 태어난 아이는 '신문지'에 싸여 마룻바닥에 방치되는데, 도시꼬는 그 광경을 보고 아이의 미래 역시 계속 그런 식으로 불행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도시꼬가 그 아이의 앞날을 상상하는 것이 「신문지」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십년 뒤, 가엾게도 그 비참한 아이는 지독히 무서운 환경 속에 빠질 것이리라. 희망도 없고, 돈도 없이, 짧은 몸뚱이를 아무렇게나 마치 쥐새끼처럼 지탱해 갈 것이리라.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아이는 그렇게 될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미워하며 언제나 혼자 뿐 일 것이리라. 이런 우울한 생각은 도시꼬가 즐겨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도 섬세하게 그 아이의 미래를 또 것처럼 생각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sup>18)</sup>

도시꼬는 피에 젖은 신문지와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에 처할지 상상한다. 그 상상은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긍정하는 것이 아닌, 삶을 결핍된 것으로 인식하고 결국 그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치닫는다. 결과적으로 도시꼬의 상상은 현실이 된 듯, 결말 부분에서 그녀는 성장한 아이의 모습을 한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에게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그의 곁으로 간다. 그 과정은 황성(皇城)의 짙은 숲이 잠드는 장면과 대치되면서 여운을 준다. 이처럼 '생(生)'의 불화와 그 아래 깔린 죽음의 그림자를 아름답게 형상화한 것은 미시마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할 것이다. 그동안의 미시마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신문지」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18) 미시마 유키오, 「신문지」, 위의 책, 214면.

그러나 「신문지」는 미시마만의 독특한 색채가 담겨 있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바로 이전 해에 발표된 『파도소리(潮騒)』가 신조사문학상(新潮社文学賞)을 수상한 것에 비해 「신문지」는 별 파동 없이 넘어갔고, 이듬해 화제작 『금각사』가 발표되며 크게 거론되지 않은 채 지나갔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신문지」가 한국에서 번역되었던 것일까. 예컨대 미시마와 함께 ‘문제작가’로 호명되었던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경우에는 「사양(斜陽)」이 번역되었다. 「사양」은 1947년에 『新潮』에 발표된 작품으로, 곧바로 다음 해 판매 2위를 기록하는 등 『인간실격』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 작품의 화제성에서 「신문지」는 「사양」만큼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신문지」는 번역되어 「사양」과 나란히 수록되었다.

30살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 『가면의 고백』(1949)을 성공시키고, 그 뒤 『금각사』(1956)로 정점을 찍으며 일본 전후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등극한 미시마였기에, 그와 그의 작품에 대해 ‘문제작가’ 또는 ‘문제작’이라고 칭하는 것이 물론 어색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러한 유명작·대표작이 아닌 다른 작품이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미시마가 수용되는 맥락을 더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 볼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심지어 편집위원들은 이미 미시마가 히트시킨 작품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본 세계문학전집이 기획되기 이전인 1950년대만 하더라도 공적 차원에서의 번역, 즉 번역의 중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본문학(서)가 범람하고 있었기에<sup>20)</sup>, 당시의 번역지

19) 한 아이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콩트 형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이 소설은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의 광경을 보았노라고 우겼다”를 시작으로 하는 『가면의 고백』을 연상시킨다. (미시마 유키오, 『가면의 고백』, 양윤옥 옮김, 문학동네, 2009, 11면 참조.) 이처럼 「신문지」는 미시마 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던 왜곡되고 파괴된 ‘생(生)’과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단편적인 사건들이 미학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20) 이봉범은 1950년대 국가권력이 검열제도를 활용해 번역허가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형적인’ 번역장을 주도해냈다고 보았으며, 그 일례로 일서(日書)의 무단번역출판, 일어중

평 속에서 문학을 접했던 이들이 미시마의 유명작·대표작을 모를 확률이 더 적어 보이기도 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전후파의 신인들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미시마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제2의 신인인 미시마 유키오는 전후파 중에서는 가장 예술적인 자질을 나타내어 「가면의 고백(49)」, 「사랑의 목마름(50)」, 「금색(51)」 같은 특이한 작품을 썼다.<sup>21)</sup>

편집위원들이 나열하고 있는 작품들은 미시마의 정체성, 즉 그의 ‘예술적인 자질’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이다. 하지만 1960년에 『가면의 고백』이나 『사랑의 갈증』 등은 번역되지 않았으며, 미시마를 소개하는 차원에서만 작품명이 제시되어 온 정도였다. 편집위원들이 설령 이 작품들을 접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특이한’ 작품들을 제치고 「신문지」가 번역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추측해보건대, 우선 전후의 문제작을 모아둔 전집의 특성상, 장편의 분량을 소화할 수 없었기에 단편을 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앞서 역자인 최정희가 자신이 「신문지」를 번역한 까닭은 단순히 그 소설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 역시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듯하다. 게다가 미시마는 단편보다 장편에 강했던 작가로, 이전에 번역된 「비틀거리는 미덕」이나 「교코의 집(鏡子の家)」을 제외하고는 1955~1960년에 『가면의 고백』만큼 눈길을 끌었던 단편은 크게 없었다. 이 시기의 단편을 물색하다가

역이 범람한 것을 들고 있다. 외서(外書)의 수입 폭이 좁은 상태에서 일본교육을 받은 일반 독자와 지식인들은 사적인 경로로 유통되었던 일서를 애용하며 지적·문화적 자양분을 공급해 나갔던 것이다. 4·19혁명 직후의 일본문학·문화 ‘붐’은 이러한 현상의 반영일 뿐 아니라, 번역문학사의 획기적 계기로 평가되는 세계문학전집의 기획·출판까지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봉범, 「1950년대 번역 장의 형성과 문학 번역-국가권력, 자본, 문학의 구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459~460면 참조)

21) 백철, 안수길, 최정희 편, 앞의 책, 383면.

미시마의 작품경향을 압축시킨 「신문지」가 발견된 것일지도 모른다. 편집위원들의 후기에 기대어 설명하자면, 「신문지」는 “전후의 허무감을 누구보다도 리얼하게 묘사”했고 “허무감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전후청년들의 생태를 심리와 행위 면에서 끝까지 추구하여 고전적인 안정감 속으로 인도”한 작품이다. 편집위원들은 이 짧은 단편 하나로 몰락한 전후의 현실을 미적으로 그려왔던 미시마의 작품세계를 파악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신문지」를 미시마의 “재능과 문학적 주제를 맵시 있게 담아 냈”<sup>22)</sup>은 문제작으로 보고 번역을 감행한 것이라 생각된다.<sup>23)</sup> 환언하자면, 「신문지」는 작품 자체의 필요성 때문에 번역되었다기보다, 일본 전후 문단의 문제작가인 미시마의 이름을 알리고 그의 작품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번역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문에서 편집위원들이 일본 작가들의 양해를 구해 판권을 얻고 전집을 출판했다고 밝힌 점, 일본 작가들이 직접 이 일에 공감하고 격려했다는 점으로 보아, 미시마에 의해 「신문지」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을 확률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⑤작가는 말한다에 실린 미시마의 수필 「일기」도 아마 그렇게 수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욱 문제적인 것은, 그 뒤로도 미시마의 대표작 『가면의 고백』과 『금각사』 등이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54년에 발표되었던 『파도소리(潮騒)』가 62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66년에 일본 근대작가 100명의 작품을 담은 『일본대표작가백인집』에는 「답교(踏橋)」가 수록되지만, 그 어디에도 미시마의 대표작은 수록되지 않는다. 이 작품집 역시 “일본에

22) 위의 책, 411~412면.

23) 미시마와 함께 ‘문제작가’로 호명된 시이나 린조(椎名麟三)의 경우에도, 대표작 「심야의 주연」(1947)이 아닌 『영원한 서장(永遠の序章)』(1948)이 번역된 바 있다. 편집위원은 『영원한 서장』이 시이나 린조의 변모, 즉 “대담한 비약”을 알리는 「해후(邂逅)』(1952)의 원형이 되는 작품이라 보며, 이 작품을 통해 시이나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나 구성”을 입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들은 편집위원들이 해당 작가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 수 있는 ‘원형적’인 작품만을 선별하여 수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위의 책, 417면 참조.)

대한 연구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현대일본문화의 표상”<sup>24)</sup>을 담아둔 동시대적인 작업물로 일컬어졌지만, 미시마의 작품만은 60년대가 아닌 50년대 후반의 것들이었다. 함께 수록된 여타 작가들의 작품만 보더라도 그의 작품만이 현재의 미시마, 즉 60년대에 진입한 미시마와 매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미시마의 사상적 전환과 「우국(憂國)」의 번역불가능성

60년대로 들어선 일본은 미일신안보조약<sup>25)</sup>을 기점으로 전례 없는 정치적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신안보조약의 체결에 반대하며 전개된 안보투쟁과 그에 대한 우익 단체의 대항은 전후 일본의 극심한 사상적 대립을 낳았고, 그로부터 일본에는 전후 민주주의와 천황주의라는 극단의 사상이 공존하는, 매우 ‘기묘’한 형태의 정치적 구도가 형성되었다. 60년대의 시작과 동시에 ‘정치’의 계절을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미시마 개인에게도, 그의 문학세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열일곱의 소년 아마구치 오토야(山口二矢)가 당시 일본사회당 위원장인 아사누마 이네지로(淺沼稻次郎)를 살해한 사건(1960)은 당시 일본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는데, 미시마 또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인다. ‘칠생보국 천황 폐하 만세’라고 쓴 뒤 죽어버린 이

24) 「일본대표작가백인집 전오권」, 『조선일보』, 1967.1.24.

25) 1960년 1월,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신안보조약에 조인했다. 1951년 9월 체결된 구안보조약이 미군의 주둔을 규정하지만 미군에게 일본 방위 의무가 없는 편무적(片務的)인 것이었다면, 신안보조약에서 이것을 쌍무적인 것으로 개정하고자 한 것이었다. 공산당과 사회당 측은 전쟁의 개입가능성이 높은 신안보조약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기시 내각은 이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신안보조약을 타결했다. 이 강행 타결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그로 인해 5월 19일 이후부터 자연 승인일인 6월 19일까지 일본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중운동이 발생했다.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 유재연·이동욱 역, 『일본 전후사 1945~2005』, 논형, 2006, 78-81면 참조)

열일곱 소년에 의해 미시마에게 “폭력에의 각성”<sup>26)</sup>이 이루어진 것이다. 50년대의 미시마와 달리 60년대 미시마의 작품에서는 이제 ‘천황’이 본격적으로 돌출된다. 그는 여전히 ‘미(美)’의 세계를 추구했지만 그 아름다움의 세계가 천황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전과 명백히 다른, 굴절되고 뒤틀려버린 ‘미(美)’였다.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 바로 「우국」이다.

「우국」은 청년 장교들이 병력을 이끌고 정부 고위 관료들을 습격한 ‘2·26 사건’을 기반으로, 황도와 청년 장교인 다케야마 신지(武山信二) 중위와 그의 부인 레이코(麗子)가 대의를 위한 죽음을 실행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다. 1930년대에 일어난 사건을 소설 속에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미시마의 내면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그는 말년의 에세이에서 11살에 어렴풋하게 느꼈던 2·26사건과, 20살에 직면했던 패전과 신의 죽음(천황의 ‘인간선언’)이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고 밝히며, “「우국」을 내가 쓰게 한 행동 안에 그 검은 그림자가 언뜻 모습을 드러내고”<sup>27)</sup> 있었다고 술회했다. 미시마의 무의식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2·26사건과 천황이라는 존재는 우익 단체의 급진성과 폭력성이 증폭되고 있을 때, 다시 말해 전후 일본이 정치적 혼란기에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미시마는 「우국」을 기점으로 사상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심지어 그는 “만약, 바쁜 사람이 미시마의 소설 중 하나만, 미시마의 좋은 점, 나쁜 점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액기스와 같은 소설을 읽고 싶다고 하면, 「우국」 한편을 읽으면 된다”<sup>28)</sup>고 말할 정도로 「우국」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인다. 미시마가 직접 표방할 만큼 「우국」은

26) 간 다카유키(菅孝行), 『三島由紀夫と天皇』, 平凡社, 2018, 150면.

27) 한정균,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2·26사건 삼부작〉(三部作) 고찰」, 고려대 석사논문, 2017, 1-2면에서 재인용. 인용부분의 원출처는 三島由紀夫, 『英靈の聲』, 河出文庫, 2005, 250면.

28)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三島由紀夫全集』第33巻, 新潮社, 1976, 439면.



미시마 작품세계의 핵심을 관통하는 텍스트이며, 그렇기에 더욱 「우국」을 둘러싼 지표들은 소설 텍스트와 작가 미시마를 분리할 수 없게 만든다.

「우국」은 발표되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신격 천황주의라는 미시마의 사상이 직접적 언설로 나타났다는 점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확히 같은 시기(1961.1)에 발표된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소설 「세븐틴(セヴンティーン)」과 동시에 호명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 두 소설은 모두 천황을 추종하는 우의 소년(청년)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적인 행위와 죽음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작품은 각각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달랐으며, 일본 문단은 이 두 작가의 대조적인 면에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했다. 미시마 유키오와 오에 겐자부로, 「우국」과 「세븐틴」에서 확연히 드러난 이 서로의 어긋남이, 일본의 1960년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할 터이다.<sup>29)</sup>

그러나 이 시기 일본 사회와 문단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정치성은 한국에서 일부 선택되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1967년에 간행된 『일본대 표작가백인집』에 「우국」은 없었지만 「세븐틴」은 수록되어 있었다는 점이 그 ‘선별적’인 정치성을 증명해준다. 61년 1월 일본에서 동시에 발표되어 함께 논란의 선상에 올랐던 작품이 한국에서는 왜 하나만 번역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왜 하필 「세븐틴」이었던 것일까. 일본 문단과의 동시대성을 강조하며 선집·전집을 간행했던 여러 움직임들을 고려하면, 미시마의 작품도 다른 전후 작가들과 같이 번역되었어야 했다. 더욱이 천황주의자와 전후 민주주의자라는 전후 일본의 두 극단으로 여겨졌던 미시

29) “오에 겐자부로와 미시마 유키오라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작가는 이 시기 공통의 장소에서 있었으며, 그곳에 1960년이라는 해의 기묘한 표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大江健三郎と三島由紀夫という、あるゆる面で対照的な作家は、このとき共通の場所に立っていたのであり、そこに、一九六〇年という年の奇妙なるしがあるといえよう)” (우에노 고시(上野昂志), 『肉體の時代—體驗的60年代文化論』, 現代書館, 1989, 16면. 번역은 인용자)

마와 오에였기에 이 두 작가는 나란히 수용되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국」이 번역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작가의 평등한 수용이 완전히 불가능했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하나의 텍스트가 번역되는 과정에는 항상 번역이 ‘발생’하는 상황, 즉 그 텍스트가 나타나고 전용되는 것을 결정하는 ‘시대정신’이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sup>30)</sup> 그렇기에 미시마와 오에가 완전히 분리된 채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도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 한국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1965)를 둘러싸고 반일 감정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해방 이후 식민지기의 잔재로 여겨져 온 ‘일본’을 재차 불러들였다는 한일협정은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그에 따라 문단에도 검열체제가 작동하여 일본 문학 및 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일협정의 이러한 규정력에도 불구하고, 당대 지식인들은 『사상계』, 『청맥』 등의 종합지를 통해 꾸준히 ‘일본’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냈고, 그 비판 여론에는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결여된 ‘비정상적’인 ‘정상화’를 독단적으로 처리한 정권의 규탄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sup>31)</sup> 그런 한국 지식인들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 것이 바로 스스로를 ‘평화주의자’, ‘전후 민주주의자’로 표명한 오에였다.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이 자국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배경에는 식민지배와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교훈이 깔려 있기에,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일본의 전후민주주의자의 작품이

30) 알바레스·비달 편, 윤일환 역, 『번역, 권력, 전복』, 동인, 2008, 145면 참조.

31) 한일국교정상화를 수립한 이후를 칭하는 ‘65년 체제’는, 식민지 체형 및 과거사 문제에 관한 냉전문화적 억압과 검열기제를 상징한다. 정창훈은 이러한 ‘65년 체제’를 둘러싼 한국문단의 사정을 조명하고, 당시 국가적 억압과 검열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였던 당시 지식인들이 『사상계』, 『청맥』, 『신동아』, 『세대』 등의 종합잡지에서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반대와 저항, ‘일본’에 대한 위기감각과 반일의식을 표명했음을 살피고 있다. (정창훈, 『한일관계의 ‘65년 체제’와 한국문학 :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국가적 서사의 구성과 균열』, 소명출판, 2021, 16·49-53면 참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sup>32)</sup> 실제로 오에는 64년에 『동아일보』 측과 인터뷰하며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인에 대하여 “일종의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자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sup>33)</sup>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토록 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본인’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는가. 『일본대표작가백인집』이 제작되는 과정은 이 시기와 정확히 맞물려 있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정치·사회적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시마는 그런 오예와 정반대에 놓여 있었다. ‘천황’이라는 존재를 미적으로 절대화시키는 미시마의 국수주의적 태도가 한국에 그대로 수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수용 과정에서 작가나 비평가의 개인적인 해석이 개입되었을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한일협정 이후 ‘재식민화’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이 표출되고 있던 때였기에 문단 내에서도 미시마의 그런 우파적 정서가 쉽게 용납될 리가 없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기에 1960년대 한국에서 미시마는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익’적인 정체성이 철저히 소거된 채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국에서 미시마는 ‘우익’ 보수파 작가가 아닌, 가와바타의 뒤를 잇는 영예로운 ‘노벨문학상’ 후보였으며<sup>34)</sup> 전후의 폐허를 ‘미(美)’적으로 구현한 작가로 통했다. 그러한 경향은 같은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가 수상을 하게 되면서 더욱 극대화된다. 수상에 힘입어 가와바타의 전집이 번역되는 한편, 함께 후보에 올랐던 미시마에게도 이목이 집중된 것이다. 『금각사』도 이 시기를 즈음해서 처음 번역되고 이후 70년대, 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번역된다. 그 이전까지 번역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가와바타가 노벨

32) 이행선,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번역 수용과 전후문학(자)의 월경 - 1990년대 일본문학 붐, 한·일 시민연대」, 『현대소설연구』 82,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446~447면 참조.

33)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씨 전후문학의 젊은 기수」, 『동아일보』, 1964.7.9.

34) 미시마 유키오가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다는 기사는 1965년부터 꾸준히 보도되었다. (「올해의 노벨문학상은」, 『조선일보』, 1965.9.30.)

문학상을 수상한 68년부터 활발하게 번역되고, 이 당시 『조춘(早春)』이라는 제목으로 『파도소리(潮騒)』가 재번역되어 신문 광고란에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sup>35)</sup> 이제 한국에서 미시마는 ‘전후 작가’라기보다 ‘일본문단의 첨단’이자 ‘노벨문학상 후보작가’ 등으로 불리며, 점점 더 본래의 정치성이 탈각된 채 수용되게 된다.

미시마가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고, 최종적으로 가와바타가 수상하게 되면서 한국 문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 놀라움은 “일본의 문학적 풍토, 미의 전통”으로 서구에서 가와바타의 작품이 “인정받”<sup>36)</sup>았다는 것에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직접 미시마의 말(“서구로부터 수입된 인간적 가치의 개념을 전혀 믿지 않고 메이지(明治) 문화의 근본적 비평을 담당해 온 것이 가와바타씨의 문학이다”)을 인용하며 가와바타의 수상을 “일본적 서정의 아름다움”<sup>37)</sup> 덕택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가와바타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강연에서 「아름다운 일본의 나(美しい日本の私)」라는 주제로 ‘일본적 미’를 이야기한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잦은 노벨문학상의 호명과 그 수상 이유를 국가 혹은 민족 특유의 성격에서 찾는 것은, 앞으로 한국 문학이 나가야 할 길을 이 일본 문학에서 찾으며 하는 시도로도 읽어볼 수 있다. 일본 문학이 ‘일본적 문화’를 고집하여 서구에서 인정받았듯, 한국도 이 시점에서 ‘한민족적 전통을 가진 문학을 구축하여 세계체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속에는 한국(문학)이 먼저 서구에서 인정받은 일본(문학)을 알아야 하고, 그 ‘앎’을 통해 세계(문학) 속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앞서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의 서문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이 인식 자체가 전후 한국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서구(문학)과 일본(문학)에 대한 열등의식”<sup>38)</sup>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35) 「일본문학의 첨단, 노벨문학상 후보작가 미시마 유키오 대표작!」, 『동아일보』, 1968.1.19.

36) 「인정받은 일문학」, 『조선일보』, 1968.10.18.

37) 「고독 70년에 안겨진 영광」, 『조선일보』, 1968.10.18.

다. 그로 인해 가와바타와 미시마는 ‘고래(古來)’의 전통적 일본의 미의식과 연결된 존재들로 그려지며 민족주의적 요청에 매우 좋은 ‘전례’로서 동원된다. 60년대 일본에서 가장 정치적인 인물로 여겨졌던 미시마는 한국에서 일본의 ‘아름다움’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비정치적인 작가로 수용되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로부터의 분리를 통해서만 비로소 수용되었던 미시마의 문학은, 한국 전후 문단의 “비정치성의 정치성”<sup>39)</sup>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국」이 번역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 4. 다시 도래하는 미시마와 미시마적 일본(인)

1968년 가와바타의 노벨문학상 전후로 미시마의 작품들이 적극적으로 번역되었지만, 여전히 「우국」의 번역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미시마가 적극 수용되었던 1960년대 내내 일본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우국」은 논단에 언급되는 일조차 없었다. 그렇게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았던 「우국」은 마침내 77년 8월, 『한창 꽃핀 숲 · 우국』이라는 단편집에 등장한다.<sup>40)</sup> 발표된 지 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던 「세븐틴」과 달리, 「우국」은 16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번역되었다. 말 그대로 ‘이제

38) 이종호, 「1960년대 일본번역문학의 수용과 전집의 발간 - 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1, 대중서사학회, 2015, 21~22면.

39) 김영찬, 「1960년대 문학의 정치성을 ‘다시’ 생각한다」,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196면.

40) 『한창 꽃핀 숲 · 우국』은 1977년 8월 신우문화사에서 출간되었다. 번역은 시인인 주성윤이 맡았다. 「한창 꽃핀 숲」, 「중세에 있어서의 한 살인 상습자가 남기는 철학적 일기의 발췌」, 「승마원유회」, 「시를 쓰는 소년」, 「신문지」, 「모란」, 「우국」 등 7편이 수록되어 있다. 주성윤은 역자주에서 “역자가 보기엔 ‘한창 꽃핀 숲’이 가장 향기 높은 작품인 듯하다”며 미시마의 작품을 직접 평가기도 하고, ‘카미카제’와 같은 일본 내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각주를 통해 설명해 놓기도 했다. (미시마 유키오, 『한창 꽃핀 숲 · 우국』, 주성윤 역, 신우문화사, 1977, 172면 참조)

야 나타난 것이다. 그 사이 큰 변화가 있다면, 미시마가 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겠다.

1970년 11월 25일, 미시마는 자위대의 주둔지에 난입하여 전후 헌법 개정과 절대 천황제 부활을 위한 궤기를 주장하다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자리에서 할복자살했다. 그의 충격적인 자살이 한국에 보도되자마자 미시마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뀌고 만다. 이전까지 ‘노벨문학상 후보 작가’로만 알려져 있던 미시마에게 “극우익 문제의 작가”<sup>41)</sup>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것이다. 미시마는 68년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사실 그는 그 이전 시기부터 우익 사상으로 선회하여 사병단체 〈방패회〉를 조직하고 우익 청년들을 양성했다. 이미 일본에서는 그의 우익적 행보가 잘 알려져 있었을 텐데도 한국에서는 일절 보도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시마가 죽고 난 뒤에야 그의 정치성은 한국에 전해졌다. 그의 죽음은 한국 문단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꽤나 파급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작가와 평론가, 교수, 정신의학자 등 많은 지식인들은 그의 죽음을 분석하고, 그것이 현대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선일보』의 한 좌담을 보면, 당대 지식인들이 미시마의 죽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다.

일본의 인기작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가 배를 가르고 목이 잘려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①공산주의를 우리 이상으로 싫어하고 ②천황을 문화적 상징으로 한 일본의 재결속과 무장을 주장하는 데 자위대가 저력을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하며 그런 자살을 한 모양입니다.

**최호진** 일본에선 뭐 일소에 불인다며….

**안병욱** 군국주의와 같은 것을 표방하며 천황을 구심점으로 하려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 생각인 것 같고, 할복자살이라는 사실은 역시 일본

41) 「노벨상 추천 여러 차례 사병까지 가진 극우익 문제의 작가 미시마 유키오 씨」, 『경향신문』, 1970.11.26.

사람이 독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군요. 생각이 안 통한다서 할복자살을 한다는 행동방법은 현대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우휘** 그런데 미시마의 경우 군국주의를 덮어놓고 주장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천황을 종교적, 문화적 상징으로 생각하며 또 개인이 추구하는 문화적인 미의식은 죽음을, 멋있는 죽음을 지향했던 모양입니다.

**최호진** 그럼 그게 멋쟁이 죽음이게?

**안병욱** 일본인의 ‘국화’로 상징되는 자연에 대한 정서와 ‘칼’로 상징되는 독종적인 면 중에서 ‘칼’이 크게 드러난 거죠. 그런 일본인들을 이웃에 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선우휘** 정치뿐 아니라 경제, 외교 면에서도 그렇죠. 저 큰 중공과 그 독종 같은 일본 틈에 끼여서...그렇지만 자살이라는 건 좀, 어떨까요. 죽기 전에 할 만큼 두고두고 해 보는 게 역시 인간다운 게 아녜요.

**최호진** 그걸 그렇게 안하는 게 일본인예요.<sup>42)</sup>

이 좌담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미시마의 죽음을 단순한 자살 퍼포먼스로 여기지 않고, 일본과 일본인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다. 상식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죽음을 루스 베네딕트의 일본 연구서 『국화와 칼』을 통해 설명하며, 아름다운 ‘국화’ 뒤에 살벌한 ‘칼’이 숨어있는 것처럼 미시마 역시 그러한 이중성을 지닌 ‘일본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이들의 논의는 결국 그런 ‘일본인’을 이웃에 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sup>43)</sup> 이전의 60년대 전통론에 내재되어 있던 동

42) 최호진, 안병욱, 선우휘, 「미시마의 할복」, 『조선일보』, 1970.11.29.

43)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을 통해 일본(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작업은 1960년대부터 계속 되어 왔다. 향긋하고 다소곳한 ‘국화’와 사무라이의 ‘칼’이라는 두 개의 모순적인 양면성이 곧 일본인의 전통적인 ‘기질’이라는 생각은 그 당시부터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60년대에는 일본인의 ‘기질’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보다, 일본의 전통은 ‘국화와 칼’로 상징될 수 있지만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전통적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 논의의 주된 흐름이었다. (유진오·이어령 대담, 「일본을 말한다」, 『새벽』, 1960.7, 125면 참

양적 열등의식은 70년대에 이르러서, 즉 이해 불가능한 미시마의 죽음 앞에서, 민족적 감정과 정서를 더 격렬하게 돌출한 채 또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죄담뿐만 아니라 미시마에 대한 글을 몇 차례 발표한 전후세대 이호철 역시도, 그를 “너무나 일본적인 작가”<sup>44)</sup>, “최후의 사무라이”<sup>45)</sup>로 규정하며, 그의 죽음을 일본인의 에토스가 발현된 것으로 해석했다. 대부분의 논의는 그런 ‘독종’적이고 문제적인 일본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논의로 귀결되었다. 그들을 잘 알아야, 우리 ‘민족’이 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미시마의 죽음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다. 『조선일보』의 한 필자는 미시마의 죽음이 명백히 “군국적 사상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지나친 정치적 색조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차라리 평소 미시마가 했던 예술적 발언들을 “음미”하면서 “귀재로서의 한 작가의 최후를 생각해보는 것이 더욱 극적”<sup>46)</sup>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전히 미시마를 미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존재했다. 60년대에 계속되었던 탈정치의 체스처를 고려하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논자들의 대화와 고민들은 그 은폐가 불가능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죽기 전에 할 만큼 두고 두고 해 보는 게 역시 인간다운” 것이라는 선우휘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자. 그의 말은 미시마 식의 파괴와 파멸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두고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처럼 들린다. 선우휘는 미시마에게 적잖은 흥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sup>47)</sup>, ‘미시마적 일본인’

주)

44) 이호철, 「너무나 일본적인 작가」, 『경향신문』, 1970.11.27.

45) 이호철, 「그는 최후의 사무라이」, 『조선일보』, 1970.11.27.

46) 「만물상」, 『조선일보』, 1970.11.27.

47) 선우휘는 죄담 외에도 미시마의 죽음을 소재로 「미시마적 일본인」(『조선일보』, 1970.11.27.)이라는 글을 또 한 차례 발표했다. 그의 생애와 죽음, 죽음을 둘러싼 고찰이 담긴 이 글을 보면, 그가 미시마의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만은 결코 그의 이해범위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뒤이어 등장하는 최호진의 말은 애초에 그 모든 이해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내준다. 미시마는 ‘일본인’이기에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고, 칼로 자신의 배를 찢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천황’을 구심점으로 삼고, 스스로 폭력의 대가를 치른 존재들을 우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마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필터 안에 안착할 수밖에 없다.<sup>48)</sup>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고 죽은 그의 모습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가미카제 특공대가 겹쳐 보이듯, 미시마의 행위는 명백하게 ‘국가를 위한 행위의 추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에서 TV로 미시마의 할복 장면을 본 김윤식은 그의 자살 사건을 “심히 기분 나쁜 어떤 징후”였다고 회고하며, 그것은 곧 “한갓된 감정적 영역에서 영영 이탈할 수 없는 민족의식이라는 거창한 역사의식으로 통하고 있었던 것”<sup>49)</sup>이라고 썼다. 여러 지식인과 김윤식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죽음은 곧 바로 민족적인 차원으로 향하게 된다. 민족성이 괄호 쳐진 채 문화적 무취성을 상상하게 했던 60년대의 미시마와 달리, 70년대의 미시마는 그야말로 정치와 밀접한 ‘천황주의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전까지 은폐되었던 미시마의 정치성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드러나며, 그와 동시에 ‘전통’을 구축하기 위한 올바른 예시로 제시되었던 미시마의 ‘미(美) 자체’에도 ‘천황’을 비롯한 그 이념적 배경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

48) 미시마는 정치를 “인간이 온몸으로 부딪혀 상대의 입장, 상대의 사상, 상대의 온갖 것을 말살하거나 자신이 말살당하는 인간 결투”라고 정의한 바 있다. (미시마 유키오, 남상욱 역, 『미시마 유키오의 문화방위론 : 문화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음과모음, 2013, 198면 참조.) 사상에 ‘몸’을 내걸거나 ‘신체’ 자체를 던지는 것, 그리하여 죽음에 치닫는 것이야말로 미시마가 생각하는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시마가 이러한 ‘폭력’을 전제로 한 정치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패전 직후의 전쟁 책임, 천황의 권한을 빼앗고 상징적 위치만 부여한 ‘일본국헌법’과 관련한 문제가 깔려 있다. 그에 대해서는 남상욱의 연구(〈일본국헌법〉을 통해 보는 ‘전후일본’-미시마 유키오의 〈일본국헌법〉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사상』 23,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2)를 추가적으로 참조가능하다.

49) 김윤식, 『내가 읽고 만난 일본 : 원로 국문학자 김윤식의 지적 여정』, 그린비, 2012, 103면.

진다. 70년대가 되어서야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함을, 당대 논자들의 대답과 회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시마의 죽음과 함께 늘 거론되는 ‘일본(인)’의 기질과 정신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무의식 안에는 “일본을 언제까지 두려워할 수만은 없다는 논리, 그리하여 이미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또 들어올 왜색을 막는 길은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길”<sup>50)</sup>뿐이라는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이는 한일협정 때부터 박정희 정권이 밀고 나갔던 논리인데, 박정희가 주권독재를 선포한 유신체제기에 접어들어 더 뒤튼 양상을 띠며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이 시기에 미시마를, 또 ‘일본(인)’을 대하는 태도에는 재식민화의 공포나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기보다는 ‘일본(인)’과 우리 ‘민족’을 더 명확하게 구분 짓고 그들을 더욱 분석해 보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난다. 정부와 지식사회는 그러한 ‘민족적’ 사유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강조하면서, 정체되어 있던 ‘민족’의 성립을 도모하기 위해 그것을 수행할 ‘주체’를 양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주체’로 호명되었던 것은 더 이상 소수 엘리트 지식인만이 아니었다. 모든 ‘대중’이 ‘국민’이 될 수 있었고, ‘국민’으로 호명된 수많은 대중들은 자신의 삶과 의식 속에서 민족중흥과 발전 담론을 체화하고자 했다.<sup>51)</sup> ‘민족적’ 자아의식이 근대적 주체인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었기에, 대중들은 ‘자발적’으로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고자 했던 셈이다.

심지어 이러한 관권의 민족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국민’이 아닌 ‘민중’을 호명했던 민중문화운동 영역에서의 움직임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6·3항쟁, 그 국면에서 불거진 ‘매판자본’ 논쟁

50) 장세진, 「강박으로서의 식민(지), 금기로서의 제국을 넘어 - 1960년대 한국 지식인들의 일본 상상과 최인훈 텍스트 겹쳐 읽기」, 『비교한국학』 24, 국제비교한국학회, 2016, 177면.

51) 권보드래 외 4명, 『1970, 박정희 모더니즘 : 유신에서 선테이서울까지』, 천년의상상, 2012, 174-175면.

으로 인해 대두된 ‘저항적 민족주의’는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또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는 것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것은 본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 민족의 위기상황을 전제하며 그에 따른 반(反)봉건, 반(反)식민, 반(反)매관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실현시킬 주체를, ‘민중(민족)’이라는 동일한 언표를 부르짖게 되고 말았다. 국가와 차별성을 둔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주체를 세우고자 했음에도, ‘민중(민족)’의 대립항을 설정한 한,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가와 공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전유되는 민족주의와 그 속에 얽혀 있는 수많은 주체(대중-민중)들의 움직임이 야말로, “일상적 파시즘”<sup>52)</sup>의 징후를 나타내는 ‘비틀린’ 내셔널리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초·중반의 논단에서 미시마의 죽음은 그러한 ‘민족’에의 요청에 ‘이용’되었고, 내면화되어 있던 ‘일본’은 온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국가 발전 담론과 결합되었다. 그 안에는 늘 ‘비틀린’ 채 존재했던 대중들의 내셔널리즘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70년대 후반에서야 그의 죽음을 점점 더 객관화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듯했지만, 그 역시도 여전히 우리 ‘민족’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78년 한 필자의 말은 이 시기 미시마의 죽음이 수용되었던 방식을 날카롭게 관통한다. “미시마의 죽음은 영원한 캐리커처로 끝나버릴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캐리커처성은 먼 기억으로 묻어져가고 파궤-민족-무사와 같은 이미지만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sup>53)</sup>. 그

52) 임지현은 근대 국민국가가 대중의 지지와 동의를 획득해나가는 과정을 “대중의 국민화(신민화)” 과정이라고 요약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대중(민중)동원을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체계 모니적 기제”가 매우 크게 작동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국민국가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민중)의 참여를 유발하는 것은 “일상적 파시즘”의 형태를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임지현의 가설대로, 민족주의가 사람들의 일상에 내면화되어 ‘파시즘’이라는 왜곡된 형태를 낳는다면 그러한 내셔널리즘 또한 ‘비틀린’ 상상을 가진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주장이다. (임지현·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 『오만과 편견』, 휴머니스트, 2003, 184면)

53) 「일본-일본인-일본사회, 전후 33년... 그들은 ‘어떤 이웃인가’ - 8 되살아나는 사무라이적 사생관, 『조선일보』, 1978.8.29.

리고 그 이미지는 2015년의 한국에서 재생되며, 또 다시 ‘민족’을 소환하기에 이른다.

## 5. 결론 - ‘비틀린’ 내셔널리즘의 흔적을 찾아서

이 글은 전후 일본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수용 양상이 문제적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그의 수용사에 한국의 ‘비틀린’ 내셔널리즘이 새겨져 있음에 주목하였다. 1960년대 ‘일본 붐’ 현상에서부터 2015년 ‘신경숙 표절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미시마는 작품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 즉 사상적인 측면에서 더 주목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미시마 유키오의 번역 현황을 추적하면서, 미시마와 그의 ‘사상’이 어떤 흐름 속에서 수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1차 목표로 했다.

미시마는 일본 문학 번역이 급증한 1960년대에 처음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때 번역되었던 작품은 (에세이나 수필집을 제외하고는) 『가면의 고백』이나 『금각사』와 같은 대표작이 아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신문지」라는 단편이었다. 『일본전후문제작품집』에서 ‘전후 작가’라는 이름 아래 함께 번역되었던 다자이 오사무나 오에 겐자부로와 비교하면,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 번역되었는데 미시마의 작품만이 동시대성이 단절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 중·단편의 분량이 주가 되었던 전집의 특성상 편집위원들은 미시마의 작품경향을 압축시킨 짧은 단편 하나를 고심해서 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일본 문단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우국」이 한참동안 번역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미시마 번역·수용의 문제성을 방증해주었다. 1960년대 한국에서 미시마는 ‘극우 민족주의자’가 아닌,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뒤를 잇는 영예로운 노벨문학상 후보작가, 일본적 미를 구현한 작가로 통했던 것이다. 이는 본래 정치적인 의미를 지

닌 미시마를 미학의 차원으로 가장(假裝)하는, ‘정치성’의 은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고, 미시마가 충격적인 할복자살을 하자 탈각되었던 미시마의 정치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미시마의 죽음을 곧바로 ‘일본(인)’이라는 ‘민족’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내셔널리즘적 움직임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그 움직임은 박정희 정권의 민족중흥 담론과 결탁하여 미시마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기질과 정신을 가진 ‘일본(인)’을 잘 알아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지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미시마의 죽음을 다루는 여러 지식인들의 태도에서 그 ‘비틀린’ 상상을 읽어낼 수 있었으며, 민족주의가 그들의 일상에서 내면화되고 사유와 행위를 지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틀린’ 내셔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비틀리지’ 않은 ‘온전한’ 내셔널리즘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흔히 민족은 근대 체제 속에서 “상상된 공동체”<sup>54)</sup>로 여겨져, 포스트모던 사상의 영향 아래 하루 빨리 해체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민족 및 민족주의는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공동체를 상징하며, 그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한 자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배척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여러 논자들의 지적대로, 국가 권력에 의한 억압을 가시화하지 않은 채 도덕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민족주의는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온전한’ 내셔널리즘과 ‘비틀린’ 내셔널리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

54) 베네딕트 앤더슨은 어니스트 겔너의 주장(“민족주의는 민족의 자각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없는 곳에서 민족을 발명해 낸다”)을 비판하며, 그가 “민족에 알맞게 병치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밝힌다. 앤더슨은 이러한 원초적 사고와는 거리를 두며, “민족은 상상된 정치적 공동체이지만, 그렇다고 민족이 “허위/날조”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가짜나 진짜냐가 아니라, 어떠한 스타일로 상상되었는지”에 대한 것일 터이다. 다시 말해, 앤더슨은 상상된 ‘민족’이 품고 있는 “깊은 수평적 동지애·형제애(fraternity)”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대 이후 변주된 방식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역, 『상상된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도서출판 길, 2018, 25-28면 참조)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1960~70년대 한국에서의 내셔널리즘은 식민지 기억과 민족개조·발전의 담론 아래 작용했다. 그 담론들이 보편적 이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기 외의 ‘타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타자’의 자리에 들어왔던 것이 ‘일본(인)’이었던 것이다. 세계화의 조류에 편승하여 한국은 ‘동양’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과 동류의식을 갖는 한편,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또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열등감을 지니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수직적 통치 구조 안에서 일본은 더더욱 우리 ‘민족’의 선에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타민족’이었고, 그럼에도 우리가 ‘성장’하고 ‘계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이렇듯 한반도에서 ‘일본(인)’은 수사적 비유가 되어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표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은 결코 온전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설령 보편적 이상으로서 국가가 견지하는 그러한 민족적 ‘주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인)’이라는 타자를 품고 있는 이상 그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sup>55)</sup>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비틀린’ 채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미시마 유키오에 국한하여 그러한 민족적 에토스의 편린들을 읽어보고자 했다. 이후 이 글이 미시마 유키오의 번역과 수용, 전후 일본문학 수용에 담긴 내셔널한 사유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조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미시마를 비롯하여 일본의 전후문학 작가들이 한국의 작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는 것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며, 이 글을 마친다.

55) 호미 바바, 류승구 역, 『국민과 서사』, 후마니타스, 2011, 459면 참조.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사상계』 『새벽』 『조선일보』 『허밍턴포스트』

백철, 안수길, 최정희 편, 『일본전후문제작품집』, 신구출판사, 1960.

김소운, 백철, 정비석 편, 『일본대표작가백인집』 제5권, 희망출판사, 1966.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이시철 역, 『부도덕교육강좌(不道德教育講座)』, 세기출판사, 1962.

\_\_\_\_\_, 서연주 역,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나의 교양정선집 23)』, 휘문출판사, 1962.

\_\_\_\_\_, 오순 역, 『조춘(早春)』, 한국문화출판사, 1967.

\_\_\_\_\_, 박성원 역,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문음사, 1967.

\_\_\_\_\_, 주성윤 역, 『한창 꽃핀 숲 · 우국』, 신우문화사, 1977.

\_\_\_\_\_, 양윤옥 역, 『가면의 고백』, 문학동네, 2009.

\_\_\_\_\_, 남상욱 역, 『미시마 유키오의 문화방위론 : 문화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음과모음, 2013

\_\_\_\_\_, 『三島由紀夫全集』, 第33卷, 新潮社, 1976.

2. 단행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과 일본의 문학과 민주주의 : 교통과 횡단』, 계명대학교출판부, 2022.

권보드레 · 천정환, 『1960년을 묻다 -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상상, 2012.

권보드레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 : 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상상, 2012.

김윤식, 『내가 읽고 만난 일본 : 원로 국문학자 김윤식의 지적 여정』, 그린비, 2012.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 유재연 · 이동욱 역, 『일본 전후사 1945~2005』, 논형, 2006.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역, 『상상된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도서출판 길, 2018.

알바레즈 · 비달 편, 윤일환 역, 『번역, 권력, 전복』, 동인, 2008.

윤상인 외,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 1945-2005』, 소명출판, 2008.

이한정, 『일본문학의 수용과 번역』, 소명출판, 2016.

- 임지현·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 『오만과 편견』, 휴머니스트, 2003.
- 정창훈, 『한일관계의 '65년 체제'와 한국문학 :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국가적 서사의 구성과 균열』, 소명출판, 2021.
- 최원식·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 호미 바바, 류승구 역, 『국민과 서사』, 후마니타스, 2011.

간 다카유키(菅孝行), 『三島由紀夫と天皇』, 平凡社, 2018.

우에노 고시(上野昂志), 『肉體の時代-体験的60年代文化論』, 現代書館, 1989.

### 3. 논문

- 강우원용, 「1960년대 일본문학 번역물과 한국-‘호기심’과 ‘향수’를 둘러싼 독자의 풍속」, 『일본학보』 39, 한국일본학회, 2012.
- 권보드레, 「내 안의 일본 - 해방세대 작가의 식민지 기억과 ‘친일’ 문제」,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 404면.
- 김영찬, 「1960년대 문학의 정치성을 ‘다시’ 생각한다」, 『상허학보』 40, 상허학회, 2014, 196면.
- 김향, 「주권의 표상 혹은 공백의 터부 : 미시마 유키오의 텐노와 미」, 『미술사학보』 42, 미술사학연구회, 2014.
- 남상욱, 「〈일본국헌법〉을 통해 보는 ‘전후일본’-미시마 유키오의 〈일본국헌법〉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사상』 23, 한국일본사상학회, 2012.
- , 「아베 신조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와 ‘국가’ : 미시마 유키오의 렌즈를 통해 본 전후 보수주의 미학」, 『일본비평』 6, 일본연구소, 2014.
- 서은주, 「1960~70년대 일본문학 수용에 나타난 세대의식과 냉전의 메커니즘」, 『한국학논집』 7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
- 안혜연,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추리소설의 한국 수용-번역과 TV드라마를 중심으로-」, 『사이間SAI』 2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9.
- 이명원, 「신경숙의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 사실, 진실, 맥락의 문제」, 『문화과학』 83, 문화과학사, 2015, 192~194면.
- 이봉범, 「1950년대 번역 장의 형성과 문학 번역-국가권력, 자본, 문학의 구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459~460면.
- 이용희, 「1950~60년대 외국 서적의 수용과 ‘베스트셀러’라는 장치」,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8, 207~209면.
- 이종호, 「1960년대 일본번역문학의 수용과 전집의 발간-신구문화사 『일본전후문제작



- 품집』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1, 대중서사학회, 2015, 21~22면.
- 이행선,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번역 수용과 전후문학(자)의 월경」, 『현대소설연구』 21,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446~447면.
- 장세진, 「강박으로서의 식민(지), 금기로서의 제국을 넘어 - 1960년대 한국 지식인들의 일본 상상과 최인훈 텍스트 겹쳐 읽기」, 『비교한국학』 24, 국제비교한국학회, 2016, 177면.
- 한정균,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2·26사건 삼부작〉(三部作) 고찰」, 고려대 석사논문, 2017, 1~2면.
- 홍윤표, 「미시마 유키오 『금각사』에 나타난 미의 원리-문화전황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50,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0.

#### 4. 기타

「ベストセラー本」 <https://nendai-ryuukou.com/book.html> (2023년 5월 13일 검색)

<Abstract>

## The acceptance of Yukio Mishima in Korea and Fragments of National Ethos

Cho, Sua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problematic aspects of the acceptance of Yukio Mishima (1925-1970), a representative writer of postwar Japanese literature, and to reveal the presence of Korea's "twisted" nationalism in his acceptance history. From the 1960s "Japanese boom" to the 2015 "Shin Kyung-sook plagiarism incident," Mishima has garnered more attention in Korea for his ideological aspects rather than his literary works. Mishima first came to Korea during the 1960s, a period of increased translation of Japanese literary works. However, the translated works at that time were relatively unnoticed short stories, not his representative works such as "*Confessions of a Mask*" (1949) and "*The Temple of the Golden Pavilion*" (1957). It was evident that Mishima's works were distinctively absent from the extensive publication series of that time. The fact that "*Patriotism*" (1961) had not been translated for a long time further highlighted this problem. In Korea in the 1960s, Mishima was mentioned solely as a Nobel Prize candidate and a writer who embodied Japanese beauty, rather than as an "extreme right-wing nationalist." However, after Mishima's ritual suicide in 1970, his political orientation began to gain attention. There was a nationalist movement that immediately reduced Mishima's death to a "national" issue, and this movement aligned with Park Chung-hee's discourse on

national rejuvenation, ultimately leading to a logic that sought to establish the subjectivity of our “nation” by fully understanding the “Japanese (people).” By examining the attitudes of intellectuals dealing with Mishima's death, one can perceive such “twisted” imaginings, and if nationalism becomes internalized in their everyday lives and dominates their thoughts and actions, it can be identified as a “twisted” form of nationalism.

Key words: Yukio Mishima, translation, acceptance, literary field, patriotism, 1960s, 1970s, postwar, Japan, ethnic, nationalism

투 고 일: 2023년 5월 15일

심 사 일: 2023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6월 21일